

큰스님 수행한담

세상 욕심 줄이세요



94년 4월 태고사에서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한 청암스님.

이 곧 미타(彌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성미타가 자심정토로 이룩될을 강조한 것이다...

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깨달게 되면 욕조스님처럼 글을 풀라도 경전에 환하게 되고, 진족스님처럼 아무리 두꺼운 책도 보는 즉시 외울 수 있습니다...

“울력하고 잠자는 시간도 수행의 연장입니다 화두 놓지말고 사세요”

지를 잊었다는 발심을 하면서 66년 정부 각 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산신각 대웅전 요사채를 차례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보우스님의 가피로 67년에는 태고 보우 국사 비명(碑銘)과 사리탑을 보수해 보물 제 611호와 보물 제749호로 지정받아 더욱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려 공민왕이 스님을 불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물었을 때는 “거룩하고 인자한 마음이 모든 교화의 근원입니다...”

‘인자한 마음’ 교화와 다스림의 근원 무슨일이든 정성 쏟는만큼 결실맺어

경전을 버리고 선방에만 앉아있다가 잘못되어 허송세월만 한다면 차라리 경전을 읽어 지혜와 공덕을 쌓는 일보다 훨씬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즘 강원에서 이룬 교육과 함께 참선 실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나는 고운사 강원을 마치고는 일본 동경의 평림사(平林寺) 임제선원(臨濟禪院)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944년 태평양전쟁으로 귀국하기까지 6년간 임제 선지(禪旨)를 가르치는 강습원에서 임제선종을 익혔어요. 일본의 선원은 한국보다 더욱 엄격하고 위엄이 있다는 특징이라면 특징이었어요. 관광객들도 절대로 선원을 보지 못하게 하죠.

때 유명한 ‘태고암가’ 1편을 지었어요. 다음은 그중의 한 수인데 음미해 보세요. 그대 보지 못했나(君不見)/ 태고암의 태고적 일을(太古庵中太古事)/ 다만 이렇듯, 지금도 밝고 분명한데(只這如今明歷歷)/ 백천의 삼매가 그 가운데 있어서(百千三昧在其中)/ 사물을 이롭게 하고 인연에 응하면서(利物應緣常寂寂)/ 이 암자는 이 노승만 사는 곳이 아니라(此庵非但老僧居)/ 티끌 모래 수 불조(佛祖)들과 동거 같이하더(塵沙佛祖同風格).



이성모

(춘천 동제한의원 원장)

매일 새벽4시,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깨다. 춘천 약사동 종턱에 있는 보문사 대웅전에 들어가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다. 일단 법당안에 들어서면 각 단마다 촛불을 당기고 향을 사른다. 이어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고 준비 운동으로 팔굽혀펴기 30여회를 마친 뒤 꿇어 앉아 금강경과 법성계를 독송한다. 또 오계(五戒)를 지송하고 난 뒤 부처님과 아내,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하루를 열다보면 가수면 상태의 무거운 몸과 마음이 어느새 환희심으로 변할 줄을 느끼게 된다.

것이 오락한 황하의 물이 맑아 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부질 없는 생각일지 모르다라는 죄책감도 들었다.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고 말라 고 했었다. 마침내 내게 커다란 변화가 찾아 왔다. 95년 9월에 춘천 석왕사에서 개설한 강원불교대학에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강의를 받으면서부터 생활 모습이 달라졌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테니스를 치다가 무릎 관절을 다친 것이 관절염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나 경사진 곳을 갈 때는 통증이 여간 심한게 아니었다. 그러나 불교 공부에 심취하다 보니 성지를 찾아가 참배하며 그동안 배운 것들을 기도로서 회향하고 싶다는 생

매일 새벽 예불 올리고 절마당 청소 틈틈이 성지 참배로 몸과 마음 평안

일을 10여년 이상 해오고 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오래 됐지만 초심자로 산사를 찾은 것은 10여년 전의 일이다. 인제군 북면 신남리 산곡대기에까지 동지 처럼 서 있는 장수사를 방문을 찾아



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통을 무릅쓰고 보문사에서 개최한 것바위 성지순례에 동참했다. 하지만 약화된 건강 탓인지 마음만 앞서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4백여미터의 완만한 경사가

가 대진 노승을 뵈었다. 그 때 스님께서는 오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 불자들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하셨다. 그 뒤부터 스님에게 들은 감동스런 법문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예불이 끝난 뒤 오계를 지킬 것을 암송했다. 그러나 입으로만 중얼 거릴 뿐 마음과 행동으로는 오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목표가 없는 신명 생활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루는 마음에 장애가 생겨 대진스님을 찾아갔더니 나의 게으른 정진 생활을 어떻게 알아 차리셨는지 스님은 “원장은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어”하시며 꾸짖으셨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불자라고 내세우고 다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또 백년하청(百年河清)이란 말처럼 나의 독실한 수행 생활을 바라는

오르는 데도 갑자기 가슴이 조개지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한걸음 한걸음 옮길 때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법당 안으로 들어 갔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옆에서는 성지순례를 같이 온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108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 보는 순간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건이 안좋을 때 발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보람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렇게 재발심을 하며 그 날 성지순례에 돌아 온 뒤부터 꾸준히 보문사를 찾아가 108배를 했다. 기도의 기쁨 때문인지 6개월이 지나면서 무릎 관절과 협심증이 호전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각종 성지 순례에도 무리 없이 참석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졌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여성중앙 99년 6월호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 (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동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종 상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벼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경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